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대응을 위한 순환경제 간담회 개최

- 제2차 정부간협상위원회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 전문가 및 산업계 의견 수렴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4월 21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대응을 위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포럼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환경부 장관 주재로 플라스틱 생산자, 폐플라스틱 재활용업체, 유관기관, 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참석한다.

환경부는 올해 여러 전문가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국내 플라스틱 정책을 수립하고,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대응 전략을 구체화 하기 위하여 플라스틱 순환경제 전문가 포럼을 구성·운영한다.

이번 간담회는 △플라스틱 순환경제 전문가 포럼 운영 방안, △플라스틱 국제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 대응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 및 논의로 진행된다.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은 지난해 3월 케냐에서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다루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추진하자는 결의안이 처음으로 채택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이어서 그해 11월에 제1차 정부간협상위원회가 우루과이에서 열렸고, 제2차 회의는 올해 5월 파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플라스틱 국제협약 논의가 본격화되면 플라스틱 생산, 유통, 소비, 수거, 재활용 및 국제무역 등 전생애 주기에 걸쳐 국민의 생활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환경부는 그간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제2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준비를 위해 주요 국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치는 등 우리 실정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환경부는 전생애 주기 관점에서 플라스틱 순환경제 이행 및 대응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앞으로도 플라스틱 순환경제 전문가 간담회를 활성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플라스틱 오염이라는 전 세계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플라스틱 순환경제 포럼 간담회 개최 계획. 끝.

담당 부서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현수 (044-201-7340)
		담당자	사무관	문유상 (044-201-7349)
			주무관	신봉주 (044-201-7357)



□ 간담회 개요

- (時 / 所) '23.4.21.(금), 14:00~15:00 / 한강홍수통제소 1층 대회의실
- (참석자) 환경부장관, 플라스틱 순환경제 포럼 기획위원회 등 15명 내외
- (논의 내용)
 - ① '23년 K-플라스틱 순환경제 포럼 운영 방안(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 ② 플라스틱 국제협약 정부간 협상위원회 대응 방안(환경부)

□ 세부 일정(안)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5')	▪ 행사 개요 및 참석자 소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제환경협력센터
14:05~14:10(5')	▪ 환경부 장관 인사말씀	환경부 장관
14:10~14:50(40')	▪ 주제 발표 및 논의	-
14:10~14:20	- ① 2023년 플라스틱 순환경제 전문가 포럼 운영 방안	한국폐기물 자원순환학회
14:20~14:30	- ② 플라스틱 국제협약 정부 간 협상위원회 대응 방안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14:30~14:50	- 종합논의	참석자 전원
14:50~14:55(5')	▪ 마무리 발언	기획위원회 공동위원장
14:55~15:00(5')	▪ 폐 회	환경부 장관